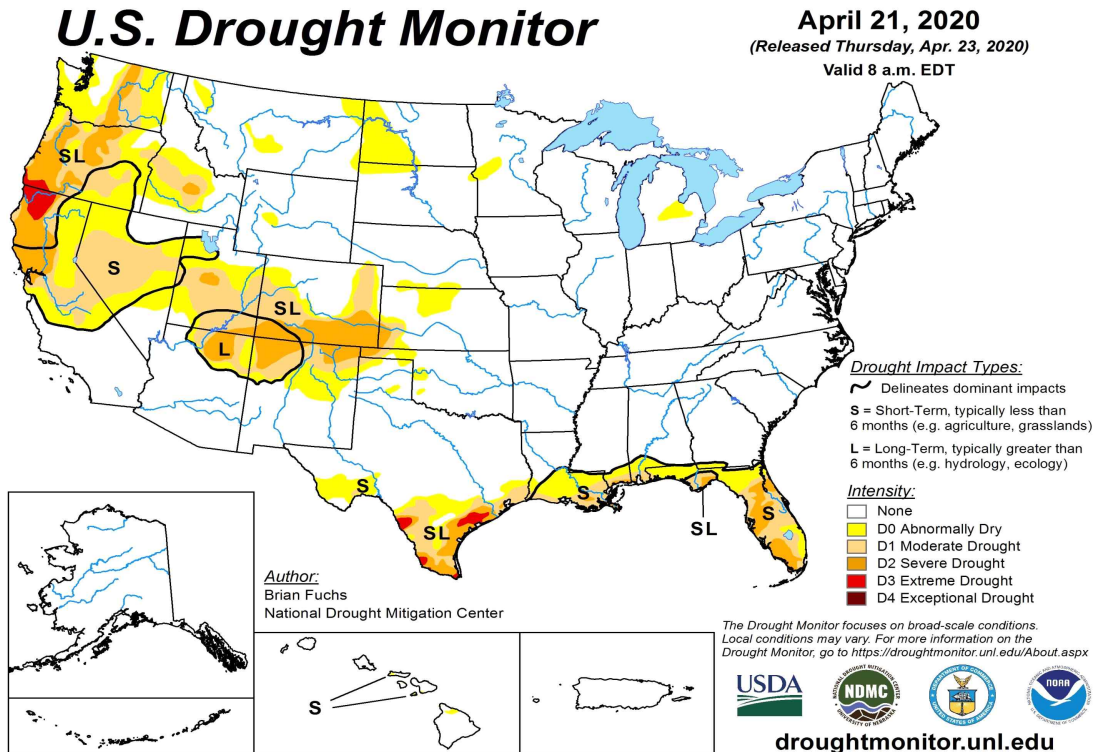


4월 2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17)

□ 미국 기후 현황(4/19~4/25)

비와 지역적으로 심한 뇌우가 남부와 중서부 아래쪽의 많은 곳에 쏟아져서 새로 재개된 야외 작업을 지체시키고 있었다. 루이지애나 북부에서부터 조지아 중부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까지 가장 심한 비가, 지역적으로 5인치 또는 그 이상 내려서 급작스러운 홍수와 강수위 상승을 일으켰다. 플로리다에는 유익한 소나기가 점점이 내렸으나 남부는 대체로 비켜갔다. 대조적으로 평원의 북부와 남부 그리고 중서부 위쪽 전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옥수수과 콩의 파종 및 기타 봄 야외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한편, 북서부에 산재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지역적으로 표토의 수분을 증가시켰으며, 한편 캘리포니아와 남서부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빠른 야외 작업 속도와 작물의 발달을 촉진했다. 몬테나 일부와 넓은 캘리포니아 구역을 포함하여 태평양 연안 주들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더 먼 동쪽으로 플로리다에서는 이른 철 폭염이 계속되었고 딥 사우스 나머지 지역에 폭염이 다시 시작되었다. 플로리다 반도와 딥 사우스 텍사스 전역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 F 높았다. 그러나 미시시피 계곡의 중부와 북부에서부터 대서양 주들의 중부와 북부까지는 쌀쌀한 조건이 계속되었다. 오대호 지역에서부터 북동부까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 F 낮아서 오하이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처럼 먼 남쪽에 광범위한 동결이 발생했다.



□ 농업 현황 요약(4/20~4/26)

델타, 남동부, 대평원 중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평균 이상의 강우가 내렸고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일부에는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태평양 북서부와 남서부에 형성된 작은 포켓을 제외하고 나라의 서부 절반 대부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서부 절반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반면, 나라의 동부 절반은 플로리다와 멕시코만 연안을 제외하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뉴 잉글랜드, 뉴욕, 오대호 지역 대부분은 기온이 평년보다 훨씬 낮았다. 뉴욕 서부 일부와 미시간 주의 대부분은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10° F 이상 떨어졌다.

□ 세계 기후 현황(4/19~4/25)

■ 유럽: 대륙의 남서부와 남부 일부에 비가 내렸던 것과 대조적으로 중부와 북부의 재배 지역에는 가뭄이 심화되었다.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고기압이 유럽의 북부 3분의 2에 확장한 날씨를 유지하여 계절 야외 작업에는 좋았지만 단기 가뭄은 악화시켰다. 영국과 동프랑스에 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봄 동안 강수량이 점점 희박해졌으며 건조 추세는 지난 주까지 (3 mm 이하) 계속되고 있었다. 지난 30일 동안 겨울 밀과 유채의 주요 지역에 내린 총 강수량은 10 mm 미만이었으며 일부 지역에는 비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더욱이, 위의 같은 경작지에서는 장기 건조가 지난 60일 동안 명백해졌다 (평년의 50 % 미만). 독일에서 서쪽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6° C 높아서 건조로 인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고 겨울 작물들은 수분에 민감한 생식기로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건조는 또 남쪽으로 북부 이탈리아까지 확장되어 생식기 겨울 곡물을 위한 토양 수분을 고갈시키고 여름 작물을 위한 관수 저장량을 제한하고 있다. 평년보다 최대 2° C 낮은 기온이 증발 속도와 작물 발달을 늦추어서 (밀과 유채는 아직 영양기 중에 있음) 동유럽 전역에서 서늘한 조건이 건조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지중해 지역 전체에서 중간-강한 소나기 (5~65 mm)가 토양 수분을 계속 과다하게 젖은 상태로 유지하여, 스페인 생산자들에게는 여름 작물 파종을 위해서 그리고 60일간 아주 축축한 날씨가 계속된 이후에 (지역적으로 평년의 250 % 이상) 겨울 곡물의 품질을 보장하려면 더 건조한 날씨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소나기 중에서 일부가 프랑스 서부에 내렸지만 나라의 주요 밀 및 유채 지역은 대부분 건조한 채로 있었다. 발칸 반도에서는 매우 다양한 조건들이 나타나서 서부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 (10~30 mm)가 내렸는가 하면 다뉴브 강 계곡은 건조한 날씨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유럽 남동부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 전망이 대체로 양호했지만 북쪽으로부터의 단기 건조 (30일 강수량이 평년의 25 % 미만)로 잠식되고 있었다.



■ 구소련(서부): 일부 남부 및 중부 재배 지역에서는 소나기와 서늘한 기온으로 겨울 밀 전망이 개선되었으나 서부와 남동부는 계속 건조했다. 폭풍이 흑해에서 북동쪽으로 불어와 우크라이나 남동부와 남서부의 남부 지역 (10~20 mm)에서부터 불가와 남동부 중앙 지역 (10~65 mm)까지 한 차례 적당한-심한 비가 쏟아졌다. 더구나, 동일 재배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최대 2° C 낮아서 작물의 발달이 다소 느려졌다. 습하고 서늘한 날씨는 최근의 건조를 완화하고 영양 후기에 있는 겨울 밀의 전망을 개선해주어서 특히 러시아 남서부에서는 때에 맞았다. 반대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중부에서부터 벨로루시까지 건조한 조건 (2 mm 이하)이 계속되어서 영양기 겨울 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은 줄이고 있었지만 여름 작물 파종과 기타 계절 야외 작업은 독려하고 있었다. 이들 서부 재배 지역 전역에서 지난 60일간의 강우량은 평년의 50% 미만이어서 겨울 작물 발달과 여름 작물 출현을 위해서는 수분이 곧 필요하게 될 것이다. 흑해의 동부 지역에서 북카프카즈와 인근 전역에 내린 가벼운 비 (5 mm 미만)로는 밀이 생식기를 향해 가고 있어서 발달 중인 가뭄에 대한 우려를 거의 가라앉혀 주지는 못했다; 이 지역의 30일 강우량은 평년의 25% 이하로 기록되었고 밀은 현 추세대로라면 5월초에 출수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 동아시아: 지난 주 초반에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양쯔강 남쪽의 남중국 넓은 구역에 걸쳐서 25 mm에서 거의 100 mm에 육박하는 비를 내렸다. 이 수분은 생식기에 있는 조생종 벼뿐만 아니라 후기 생식기에 있는 유채에게도 유익했다. 양쯔강 북쪽 지역에서는 초기 생식기 중에 있는 밀을 위해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한편, 북동부에서는 늦은 봄에 내린 한바탕의 눈과 얼음으로 인해서 옥수수와 콩 파종을 앞둔 야외 작업을 지연시켰지만 주말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쌓인 것들을 빠르게 녹였다. 북동부와 남쪽에 생긴 포켓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거의 5° C 낮았고 그 밖의 곳은 평년보다 3° C 정도 낮았다.

■ 호주: 농산물 생산이 대체로 제한적인 지역들에 내린 국지적인 소나기 (지역적으로 거의 25 mm)를 제외하면 퀸슬랜드 남부 대부분과 뉴 사우스 웨일즈의 많은 곳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이런 건조한 날씨 덕분에 여름 작물 수확 및 겨울 작물 파종 등 야외 작업이 지체 없이 진행되었다. 밀 벨트 내의 다른 곳에 산재적으로 내린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빅토리아와 남호주에서 표토 수분량을 증가시켜서 겨울 곡물과 유채류의 추가 파종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다. 서호주에 있는 밀 벨트에는 비교적 건조한 날씨가 몇 주간 계속된 이후에 광범위한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다. 이 비는 토양 조건을 겨울 작물 파종에 적합하게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밀, 보리, 캐놀라의 파종을 촉발시킨 것 같다. 밀 벨트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 (평년보다 최대 2° C 높음),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20도대에 있었다..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계속된 소나기 덕분에 겨울 곡물 철을 위한 수분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대부분의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최소 10 mm였고 주의 북동부 지역 대표단들은 보고한 수치는 25~50 mm 였다. 그 밖의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넓은 북아르헨티나 지역은 완전 건조를 기록했다. 평년보다 더 따뜻한 날씨(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 C 높음)가 대체적인 건조를 수반하여 야간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중에 여름 작물의 빠른 수확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4월 23일 기준으로 해바라기 수확은 거의 완료되었다(99%). 한편, 옥수수는 32% 수확되어 작년보다 5 포인트 뒤떨어졌고 대두는 49 % 수확되어 작년보다 6 포인트 앞섰다. 면화는 작년의 33% 대비 45% 수확되었다.

■ 브라질: 남브라질의 상당 부분을 건조한 날씨가 차지하여 2차 옥수수의 정상 발달에 필요한 수분 저장량을 더욱 줄이고 있었다. 파라나의 핵심 생산 지역을 포함하여 마토 그로소도 술과 미나스 게라이스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 있는 많은 지역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이 건조는 남쪽과 서쪽으로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까지 확장되었다. 이 건조한 조건이 밀의 파종 작업과 대두와 2차 옥수수의 늦은 수확을 포함하여 계절적 야외 작업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2차 작물 옥수수의 현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려면 비가 필요했다. 파라나와 마토 그로소도 술에서 특히 이런 필요가 있었는데 이곳의 옥수수는 수분에 민감한 발달기에 가까워지고 있거나 지나고 있었다. 주가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필요한 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낮은 섭씨 30도대까지 올라가서 작물의 수분 수요와 증발 손실량이 계속 상승했다. 브라질 남부의 다른 곳을 보면,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보다 건조한 조건들이 옥수수와 콩의 건조 및 수확 작업에 유리했고, 이른 시기에 내린 비로 토양 수분이 더 양호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에서는 화창한 날씨가 사탕수수와 커피의 발달을 도왔다. 한편, 마토 그로소와 고이아스에서부터 북쪽으로 토크안티스를 지나기까지 산발적으로 계속 내린 소나기(5~15 mm 또는 그 이상, 지역적으로는 50 mm 이상)가 2차 옥수수와 면화에 대해서 유망한 전망을 유지했다.